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0.04

한국 VOM은 여러분의 소중한 헌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온라인 상영회에서
기도 달력을 신청하신 분은
이번 소식지가 반송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달 소식지와 함께 기도 달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칸(맨 오른쪽)과 그의 아내 마이야는 미얀마의 한 지역에서
기독교인 사역자들의 자녀 17명을 보살핀다.
이 지역 어린이들은 보통 신부나 군인으로 팔려간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풀리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신의 소리
Voice of the Martyrs

Martyr's Spirit Alive in the Christi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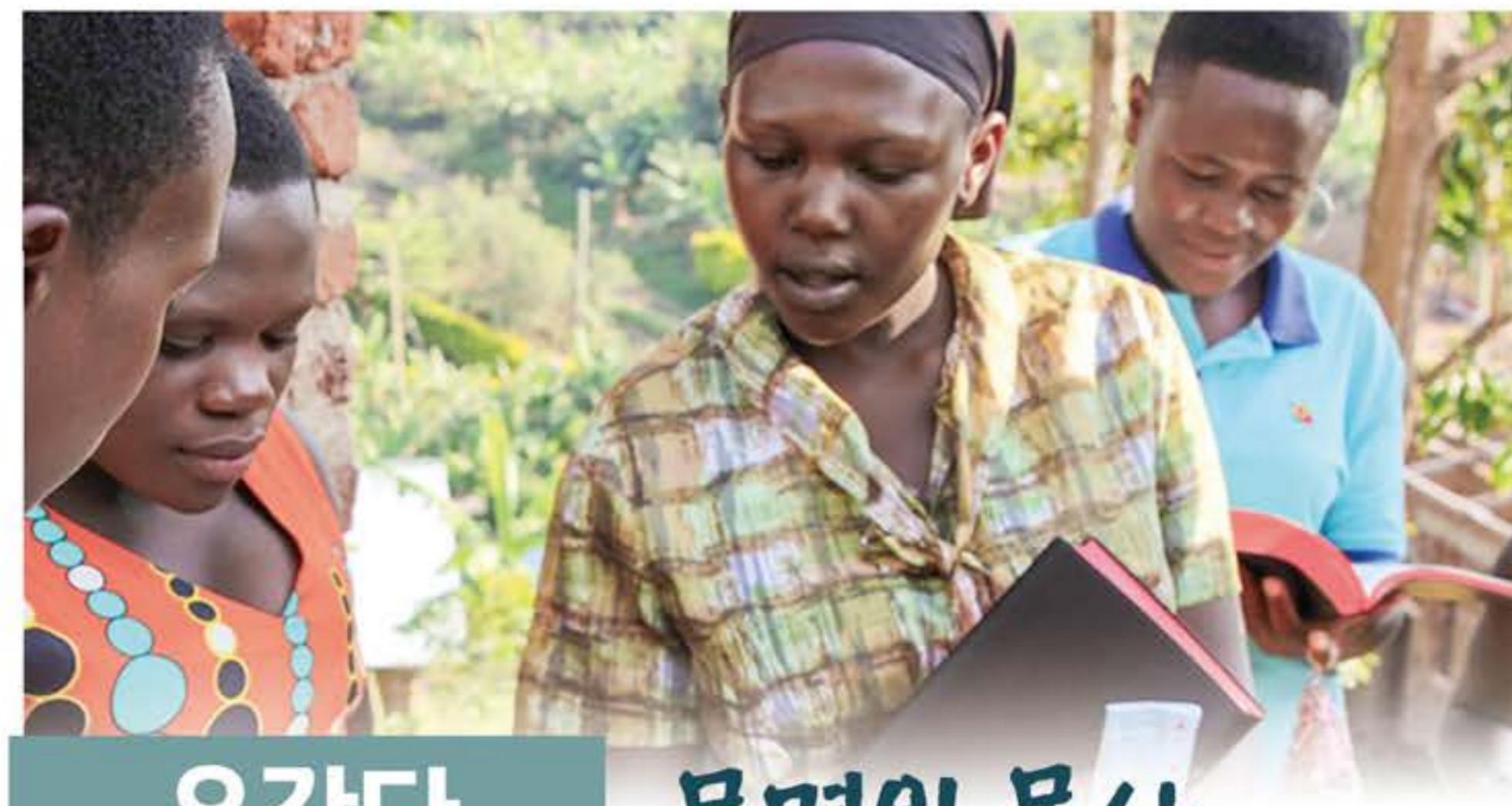
한국교회



성경은 현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영적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다른 종교와 이념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은 폭력조직의 우두머리가 서로 인간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기독교인에게 자신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폭력조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폭력조직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평화로운 기독교인마저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 VOM Voice of the Martyrs Korea은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사역합니다. 우리는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에게 억압받는 인도 기독교인을 지원하며 호전적인 이슬람 집단에게 짐승처럼 잔인하게 취급받는 아프리카 기독교인을 보살핍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독교를 타도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의 기독교인에게 양육 자료를 공급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념 집단들에게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우리 삶에서도 핍박을 예상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없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폭력조직에 속해 있는지를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간다

무명의 목사

“이 성경을 유용하게 쓰세요. 헤지거나 때가 묻을까 봐 겁내지 마세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이 말은 우간다의 한 목회자가 순교자의 소리에서 제공한 성경책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며 당부한 말이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제공한 성경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전에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이 회심자들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받은 것에 특별히 감사하며 말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저는 복음서를 읽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성격책을 보게 되더라도 없애버리도록 강요당했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읽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간다 기독교인들은 무슬림 가족 구성원에게도 핍박당하지만 무슬림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도 핍박을 당한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신자들과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는다.



우간다

아담

아담 Adam은 우간다 Uganda에 사는 소말리아 Somalia 기독교인이다. 아담은 기독교인이지만 우간다 기독교인들은 때로 그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모든 소말리아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청년들을 훈련하는 아담은 작년부터 마을과 난민 캠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순교자의 소리는 아담이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오토바이를 지원해 주었고, 오토바이를 받은 아담은 이렇게 말했다. “제 가족은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인연을 끊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지원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오토바이 덕분에 전도 사역이 수월해질 것 같아요. 먼 길도 빨리 가고 사역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얀마

칸과 마이야

2009년 칸Kan이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어떤 친구가 “아내와 함께 남자아이 2명을 돌봐줄 수 있어?”라고 물었다. 5살과 7살인 두 소년은 각기 다른 가정에서 왔다. 이들의 부모는 새신자로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부모는 자신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군 집단이 그 아이들을 소년병으로 데리고 갈까 봐 걱정스러웠다. 반군 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보통 자녀 한 명을 반군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기독교 가정은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모두 반군에게 넘기도록 종종 강요당했다.

21세기가 시작되었을 무렵,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소년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시 미얀마 군인 총 35만 명 가운데 20%가 소년병이었다. 소년들은 정부군과 반군 집단에 징집당했고, 반군 집단이 장악한 지역의 소녀들은 강제 결혼을 당하거나 성매매로 중국에 팔려갔다.

칸은 어떻게 하면 아내와 함께 그런 가정을 도울 수 있을지 기도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흘이 지난 뒤, 친구의 요청에 대답도 하기 전에, 친구는 그 두 소년을 데리고 칸의 집을 찾아왔다. “정말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어요.” 칸이 웃으면서 말했다.

당시 칸과 마이야Maiah 부부는 이미 아이가 5명이나 되었으므로 두 소년을 먹여살릴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칸 부부는 전심을 다해 두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고, 교육시켰고, 함께 살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받도록 도왔다.

칸과 마이야는 자신들이 보살피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는 반군 집단이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과 정반대이다. 칸은 말한다. “두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저는 ‘우리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한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하지만 너희를 먹여살리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야. 모든 것은 하

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칸은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전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이 선교 사역의 기쁨이죠. 친자식처럼 그 아이들을 대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을 사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칸과 마이야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친자녀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 지금까지 칸 부부는 다른 가정의 어린이 17명을 보살펴주었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15살이었고 가장 어린 아이는 3살이었다. 미얀마 기독교인들의 자녀를 돌보는 자신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하게 도우셨는지 생각하면, 칸과 마이야 부부는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급하시고 인도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들이 친자식 같아요. 이 아이들은 우리 식구입니다.”



소식지(기도달력) 신청 방법

- 온라인(vomkorea.com) 신청
- 사무실(02-2065-0703)로 전화하여 신청
- 문자(010-3151-2065)로 신청: 수령자 주소와 성명을 보내주세요.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김교신홀]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7길 15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한국 기독교 재정투명성협회
1호 인증



facebook.com/VO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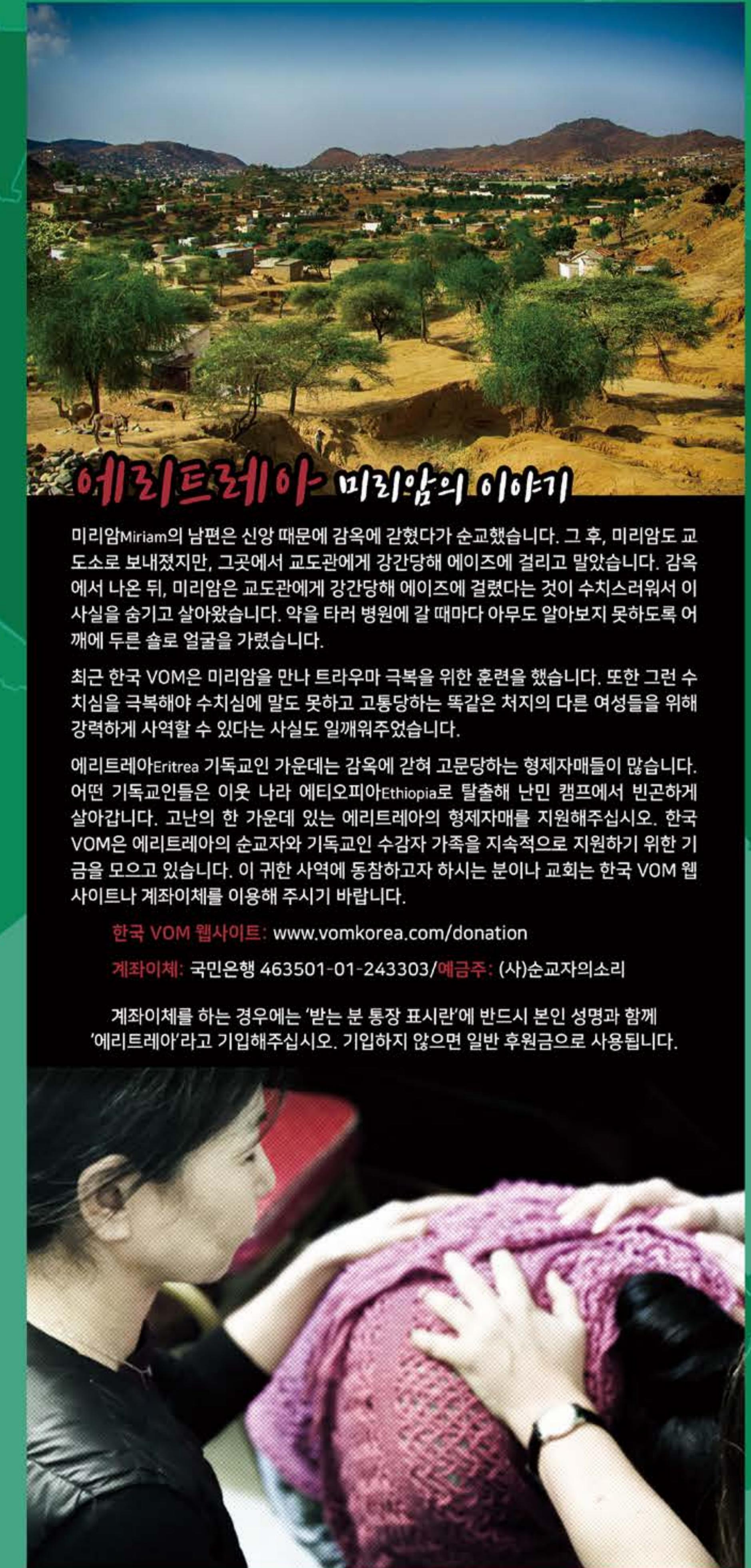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korea

2020년 4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이라크 사람들이 IS의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보고, 이슬람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해주세요.	2 멕시코 남부 기독교에 적대적인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북한 최근 이웃 나라에서 세례 받은 'L형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4 에리트레아 순교자의 소리가 후원하는 라디오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5 탄자니아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주세요.	6 말리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북부 형제자매들에게 용기를 주도록 기도해주세요.	7 오만 신앙 때문에 잡을 떠나야만 했던 기독교인들이 가족과 화해하도록 기도해주세요.	8 인도네시아 무슬림을 전도한 뒤에 감옥살이를 하다 최근 풀려난 새푸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9 예멘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남편을 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1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독교 난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소망과 승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기도해주세요.	11 아제르바이잔 국가 전체에 만연한 부패를 정부가 적절하도록 기도해주세요.
12 필리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이웃에게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13 아제르바이잔 100만에 가까운 난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14 네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5 인도 예배당이 파괴된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6 브루나이 토착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17 소말리아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잊은 기독교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8 카자흐스탄 기독교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교회들이 급습과 위협과 벌금형을 당하고 있으니 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19 네팔 토착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0 시리아 매주 경찰을 만나 활동을 보고해야 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1 나이지리아 무슬림 가족에게 의절당하고 마을에서 추방당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2 라오스 복음전도자들이 고향 외부 지역에서 '불법으로' 사역하다 체포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23 카자흐스탄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새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24 아랍에미리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자녀를 빼앗긴 여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5 인도 카슈미르 지역 무슬림 사이에서 교회 개척을 추진 중인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6 필리핀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공부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7 중국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존 차오 목사님이 석방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8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어 성경이 합법화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9 콜롬비아 밀림에 가서 여러 무장 범죄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30 알제리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북한 문 씨



음식과 돈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외국에서 일하는 많은 북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문 씨는 외국에서 노동자로 일해도 두려움과 고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다가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문 씨는 절망했고 증오심이 쌓였다. “총이라도 있었다면 감독관들을 다 쏴 죽이고 나도 자살했을 거요”라고 문 씨는 말했다.

한국 VOM 사역자는 문 씨가 일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성경이 녹음된 MP3 플레이어를 주었다. 문 씨는 이것을 열심히 들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이제 문 씨는 웃는 얼굴로 살아간다. 한때 문 씨의 마음에 가득했던 증오심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네팔 수리타

네팔Nepal에서 힌두교 세력이 지배적인 지역에 거주하는 수리타 Sunita는 작년, 가족들 가운데 유일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어느 날, 수리타의 남편이 일하러 가고 없을 때, 그녀가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성경을 시아버지가 발견했다. 시아버지는 수리타에게 성경을 던지면서 욕을 퍼부었다. 수리타가 성경을 집어들고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자, 시아버지가 잡아채어 성경으로 수리타를 때리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격렬하게 화내며 성경을 발로 찼다. 결국 몇 페이지가 찢겨 나갔다. 그런 뒤 시아버지는 수리타를 집에서 내쫓으면서, 예수님을 버리기 전에는 집에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다.

수리타는 딸과 함께 시댁에서 쫓겨났다. 현재는 순교자의 소리가 그녀와 딸을 돌봐주고 있다. 시댁 식구에게 가혹한 대접을 받았지만 수리타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으며, 남편도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라크 미리암



미리암Myriam은 난민 캠프에 살던 9살 당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인 기자의 말문을 막하게 한 적이 있다. 이라크 카라코쉬 Qaraqosh에 있는 집에서 자기 가족을 추방한 IS를 용서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 인터뷰 영상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2019년 초, 열네 살이 된 미리암은 가족과 함께 카라코쉬로 돌아갔다.

이후 그 지역 기독교인들은 IS가 훼손한 예배당 여러 곳을 복구했다. 2019년 부활절에 미리암을 포함한 그녀의 가족과 그 지역 기독교인들은 카라코쉬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기념했다. 현재 미리암과 여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엄마는 농업 기술자로서 농민들이 파괴된 농토를 복구하도록 도우면서 일하고 있다.

파키스탄

요나

요나Jonah는 이슬람 성전聖戰 전사를 키우는 지하드jihad 훈련소에서 살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 요나가 성경을 발견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가족 대부분이 기독교로 개종한 요나를 비난했고, 따로 떨어져서 밥을 먹으라고 강요했으며, 이슬람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면을 쓰고 총을 든 남자가 요나가 일하는 가게로 들어와 총을 쐈다. 요나는 살아남았으나 팔을 절단해야 했다. 2007년, 요나를 처음 만났을 때,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는 요나가 파키스탄 북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철로 된 인공팔을 제공했다.

최근 순교자의 소리는 요나의 근황을 알아보기 위해 파키스탄에 돌아갔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뒤 요나의 가족은 기독교를 버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요나는 굴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믿음 때문에 고초를 겪은 뒤에 파키스탄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기독교인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는 파키스탄을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요나에게 물었다. 그러자 최전방 사역자로 10년 넘게 일한 요나가 대답했다. “왜 그래야 하죠? 어떤 지역에서 핍박을 당하면 저는 그냥 하나님 이 인도하는 다른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파키스탄에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나이지리아 모니카 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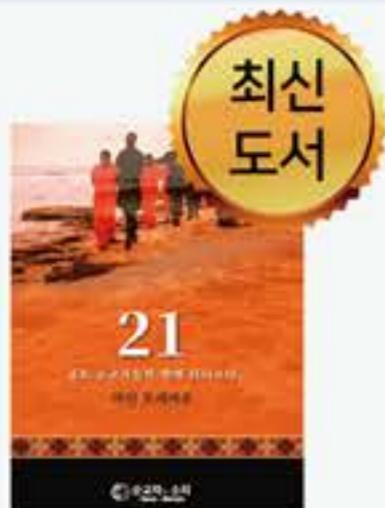
2009년, 보코 하람Boko Haram이 모니카 드라Monica Dra의 남편을 살해하고 정글용 큰 칼로 그녀의 목을 그은 다음 그녀를 도랑에 버렸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은 그녀는 손상된 목과 성대를 치료하기 위해 일곱 번 넘게 수술을 받았다. 순교자의 소리는 의료 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작은 식료품점을 시작하고 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금도 제공했다.

모니카는 이미 아내가 있는 남자와 재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정 부모에게 쫓겨난 뒤, 최근 순교자의 소리의 지원으로 옷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앞으로 모니카는 자신과 아들의 생계를 위해 양장점을 차릴 계획이다. 용기에서 계속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하는 모니카는 하나님이 자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는 모니카에게 더 큰 힘을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방하여 위로한다.

올해 19살이 된 모니카의 아들은 지난 세월을 힘겹게 버텨왔는데, 현재는 회복 센터에 머물면서 한국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여름, 그는 부모를 잃은 자녀들을 위해 순교자의 소리가 준비한 수련회에 참석했다. 그는 수련회 마지막 날에 간증을 했다. 예전에 아빠를 잃고 엄마까지 잊을 뻔 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주셨다는 간증이었다. 순교자의 소리 사역자는 그날 밤에 관하여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밤이었어요. 보코 하람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으면서 많은 십 대 자녀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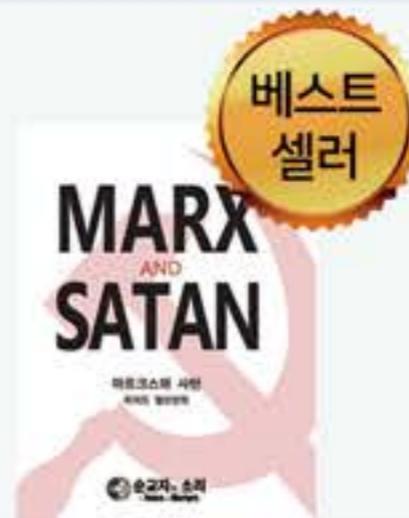
한국 VOM 도서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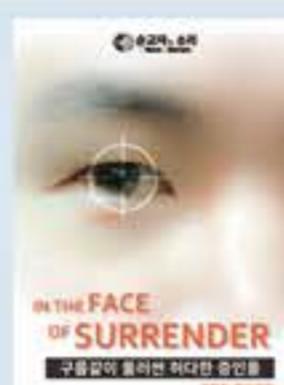
『21 - 콥트 순교자의 땅에 다녀오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한국어 번역판!
2015년 2월, IS는 리비아 해변에서 21명을 참수했다.
이 책을 통해 콥트 기독교인이었던 이들,
'순교자들'의 삶을 배울 수 있다.

10,000원



『마르크스와 사탄』
리처드 월브란트 목사가 마르크스에 관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공산주의의 영적인 뿌리가 사탄 숭배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영적 실체를 폭로한 책.

10,000원



『월브란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하나님의 지하운동』,『목사의 아내』등
베스트셀러를 하나로 엮은 책. 리처드 월브란트와 아내 사비나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

15,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극심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준 평범한
기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50편 이상 수록된 책이다.

10,000원



지하교회 시리즈

극심한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과거 지하교회의 원리를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자유 세계에서 어떻게 지하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하교회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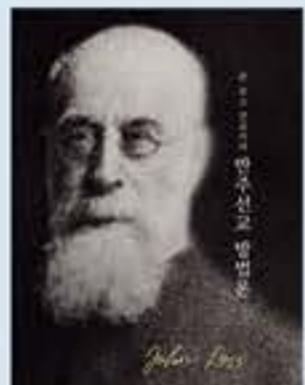
각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인류 역사상 기독교에 가장 적대적인 북한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소명을
신실하게 이뤄왔는지 보여주는 실화.

10,000원



『만주선교 방법론』

존 로스 John Ross 선교사가 중국 선교 전략에 관하여
집필한 책 일부를 발췌 및 번역한 책.
이 선교 방법론은 지금도 북한 선교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10,000원



『조선어 스터디 성경』

성경학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인정한 조선어 성경으로
한국 VOM의 모든 북한 사역에 사용되는 성경.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는 성경.

25,000원

히브리서 13:3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코스 1. 하브리서 13:3 실천 사역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시청 - 한국 VOM 투어 - 중보기도



코스 2. 전 세계 기독교인 섬김 사역

단편영화 “그들의 목소리” 시청 - 편지쓰기 사역 - 중보기도



코스 3. 북한 지하교인 섬김 사역

단편영화 “북한, 상철” 시청 - 풍선 & 라디오녹음 사역 - 중보기도



• 참여시간: 매일(화-금) 오전 10:00-12:00 또는

오후 1:00-3:00 중 선택 가능

• 참여대상: 3인 이상 기독교 모임 또는 1인 개별 참석 가능

• 참여장소: 순교자의소리 사무실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www.vomkorea.com

5개 국제 기독교 영화제 주요 부문 수상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TORTURED
for CHRIST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핍박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이야기

교회, 소그룹 및 단체에서 상영 가능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화~토 9:00-5:00)
문의: 02-2065-0703